

1 개요

-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,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 및 개개인의 투자판단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
 -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,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 출시, 과도한 차입투자('빚투') 등으로 인한 손실위험이 높아짐에 따라,
 - 금융소비자들이 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
-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·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·의결하였으며,
 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안전한 자산형성과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금융투자교육을 제공할 예정

2 추진방향

- (아동·청소년층)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금융역량을 강화하고,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금융투자 관련 교구재 개발을 지원
 -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'금융과 경제생활' 과목 온라인 교사 연수를 제작하고 교육부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, 금융공모전시 모범사례 시상* 등 추진
 - * 금융공모전 '우수프로그램 부문에 '금융과 경제생활' 관련 활동 내용 및 모범사례 포함하여 시상
 - 'FSS 투자탐험대'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, 유관기관의 투자교육용 체험형 게임을 e-금융교육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- 1사1교 금융교육 강의교안에 자본시장·금융투자 부문을 강화하고, 금투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
- 국민연금공단,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유관기관의 1사1교 참여를 확대하여 전국 지사를 활용한 非수도권 기반 금융교육 확대 추진
- (청년층) 군장병·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기반 마련 및 올바른 투자 가치관 확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1: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
 - 대학 실용금융강좌에 금융투자 관련 내용을 확충하고
 - 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대상으로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공시 제도의 이해 및 DART 활용법 관련 교육 실시
- (시니어층) 노인의날(10.2) 맞이 은행권·국민연금공단 등과 공동으로 고령층 집중금융교육 기간을 두고, 금융사고 방지 및 연금자산 관리 등 강의
 - 「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」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연령대별 금융자산 및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5·60대, 7·80대로 세분화하여 운영

3

향후 추진계획

- 금융소비자들의 안전한 자산형성과 투자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운영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,
 -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 등을 통한 금융교육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금융투자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·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한 협업체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